

중도일보

1951년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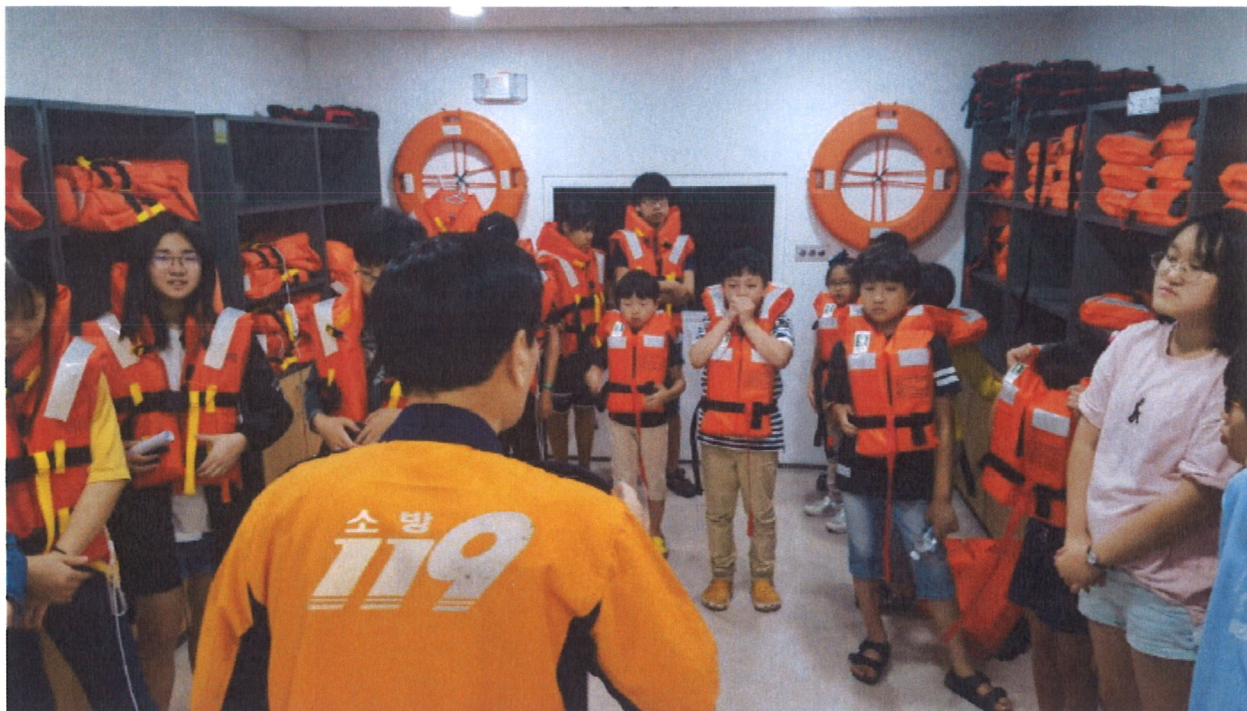
中 都 日 報

joongdo.co.kr

【특집】충남권 유일의 종합안전체험시설 ‘충남안전체험관’

김한준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7-09-10 09:46



학생들이 해상 재난시 위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가상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2017 천안어린이안전체험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골든벨 대회와 함께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의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는 점이다.

특히, 충남안전 체험관은 2016년 3월 충청권 최초이자 전국 5번째로 건립된 종합안전 체험관으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태조산 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4층 연면적 5795㎡의 대규모 시설이다.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어린이체험관, 사회재난체험관, 자연재난체험관, 응급처치실습관, 소방시설실습관 등 6개 분야 15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대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체험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에 준하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소속 소방대원의 인솔 하에 15~20여 명의 팀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미 개장 첫해인 지난해에만 목표 인원인 10만 명을 넘어선 12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올해 역시 목표 인원 13만 명 중 8월 말 기준 10만3000여 명이 이용했고 만족도 역시 94%이상을 상회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안전체험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성복 관장은 “국민의 안전한 삶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충남안전체험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